NEW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배경… 다른 재판 영향은

선거 균등 기회 제공… 법원내부 등 비판 영향

법원, 대장동 재판도 연기…나머지 4건 진행여부 촉각

국힘 "정치 압력에 굴복…'면죄입법' 철회해야"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7일 대선 이후로 연기된데 는 재판의 공정성과 선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

또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초고속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서울고등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대선 전에 잡혀 있는 재판 계속 여부도 주목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법원 사건 전산망만 고려하면 이 후보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30여분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을 미룬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판사들은 물론 시민단체, 민주당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며 서울고법에 이 후보의 재판 일정을 미루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점도 재판부의 결단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기환송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에는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도 연휴 동안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을 '데드라인'으로 거론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루지 않는다면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해 왔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는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기일 변경은 각 재판부가 별도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서울고법이 재판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후보 변호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과 '검사 사칭 위증교사'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공판이 잡혀 있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협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역 정치권, 李 재판 연기 "국민주권 지켜"

"시민의 승리"…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등 한목소리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대장동 등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14일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민주당 광주시당, 대선체제 전환

오늘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오전 11시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의 돌입을 위해 출범식에는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양부남 위원장(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선대위원장 12명과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위원장, 중앙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선대위 인선 발표, 상임 선대위원장 및 중앙선대위 참석자 발언, 대선 승리 결의문 낭독, 경청을 주제로 한 시민 발언이 이어지며,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선대위 달성목표 제막식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각 본부별로 조직을 결집하고, 확고한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힜다"며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출범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